

오가는 사람은 하얀 우주복 같은 위생복을 입은 의료진 뿐이다.

어둠이 가신다. 태풍의 눈처럼 조용한 시간이다. 격리병동 실내 공기가 뱀꼬리처럼 창밖으로 스멀스멀 빠져나가고 있다."#인플루엔자\*" 환자들의 다인 병실 내에 생뚱맞게 임시 설치된 음압 장치 소리가 이렇게도 부드러웠던 적이 있었다.

호흡기 위중증 환자 병실이라 대화는 없다. 밤새 분주하게 들락거리는 의료진의 높은 톤의 말소리가 각저있지만 부드러움이 배여있다. 위생복인 공기 호수 달린 우주복 착용에 불편한 거동을 마다 한다. 환자를 보살피는 의료진은 위대하다.

문제는 잠쉬도 쉬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음압 장치에는 손을 들었다. 공기 배출 소리가 클수록 실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어 외부로 잘 빠져나가는 모양이다. 인위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동 음압 장치다. 예전에는 공기 소리가 이렇게 굉음인지는 몰랐다. 때로는 초대형 폭포소리 연이어 터져 나오며 때로는 탱크 소리가 지축을 흔든다. 그러다가 낮에는 실개천 물소리가 힐링 되듯 오래 지속도 된다. 그러다가 어둠과 함께 진동이 시작된다.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소리의 한계치에 절규한다. 그래도 잠이 드는 것을 보면 세상은 살기 마련인 모양이다.

환자들은 어떠하랴. 병실에서 큰 기침 소리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연이어 터져 나온다. 옆 환자도 따라서 기침한다. 모두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기도에 딱 달라붙은 가래나 담을 뱉어내는 악다구니를 쓰다 보면 병실 안은 공포의 도가니다. 그러고는 다시 쪽 이어지는 정적이다. 이러한 반복이 병 재발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어 두렵게 만든다.

나도 집중관리실에서 다음날 격리 병실로 이동했다. 입실 초기에는 폐렴을 동반한 환자로서 기존 치유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분명 기피 환자였을 것이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홀로 탈출하고 싶다. 신약 항체인 "#바이러스 치료제\*"와 산소 치료의 효과를 보았다. 이제 입원 2주가 되면서 회복기에 들어섰다. 그래도 산소 공급 줄을 아직 떼지 못한 상태다.

병실 안의 어느 호흡기 환자도 병실 밖으로는 나가지 못한다. 기저 환자들이다. 오직 복도 끝의 검체채취소가 한계다. 위생복 착용에 산소통 끌고 다녀온다.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동일한 코로나19 환자일 뿐이다. 나는 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되었나 자문해 본다. 이번 입원의 의미는 또 다른 지혜의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을 선사받았다. 기침 소리가 또 터진다. 여기는 격리병실이다.

. 2021.12.3. 금



생애의 두 번째 입원이다. 일반 입원이 아닌 강제 입원으로 격리병동에서 지내야만 한다. 검사 때를 제외하고는 병실 밖 복도에도 나가서는 안 된다. 호흡기 환자들이라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잘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마스크를 쓴다. 말하면 기침이 터져 나오기에 말마저 삼간다. 사람 소리는 오로지 기침 소리밖에 나지 않는 병실 생활이 계속된다. 오가는 사람은 하얀 우주복 같은 위생복을 입은 의료진 뿐이다.

복도와 병실 어디나 독립된 음압장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간다. 장비는 환자들이 내뿜는 날숨을 쪽쪽 빨아들인다. 잠시라도 쉬면 병실이 병균으로 가득 차버리기에 계속 밖으로 빼내고 있다. 내가 뱉어낸 균과 다른 환자가 뱉어낸 균이 난무하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병실과 어울리지 않는 사각의 주황색 장비에서 빠져나온 대형 자바라 배기관은 부르르 떨며 실내 공기를 끊임없이 창밖으로 배출하고 있다. 무식한 기계가 병균을 더 잘 죽이느냐 보다. 거인이 창에 기대어 밖으로 숨을 내뿜는 형상이다. 호흡기 환자들의 날숨을 고온으로 태워버린 실내 공기가 기계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다.

“#코로나 19”는 지난해 1월부터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2년이 되어가건만 종식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변이가 계속 발생하여 5차 확산 직전의 긴박한 상태다. 백신도 2차 접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차를 맞아야 한다고 한다. 3차도 6개월 간격이 갑자기 3개월 간격으로 당겨서 맞아야 한다고 질병센터는 권고하고 있다. 영국이나 그리스에서는 아예 4차를 맞아야 한다고 한다. 답답해진다. 끝없는 백색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간과 바이러스 간에 오징어 게임 같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잘 지내왔다. 매주 산행을 해오면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정부의 방역 지침도 잘 따르고 있다. 백신도 2회 접종했고, 금년도 독감주사인 4가 백신도 맞았다. 작년에는 평생 한 번 맞으면 되는 페렴 주사도 맞았다. 그래서 자신감인지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 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수치로만 보아왔다.

그런데 자만이 지나쳐서 인지 화를 불러드린 모양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되었다. 그것도 5% 이내에만 걸린다는 위중증 환자 숫자에 포함되고 말았다. 코로나 19 증상은 중증도 분류인 트리아제(Triage) 대부분인 80%는 미증상이나 경증 증세이며, 15%가 모더레이터 증상이다. 나는 그러한 부류에도 속하지도 못했다. 확진자라 해도 왜 극소수의 위중증 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사실 누구도 예외 없이 순식간에 위중증 환자가 될 수는 있다. 바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입원 중에도 같은 병실 내의 두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되어 심야에 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희망이 없어 보였다. 자문에 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자문해 본다. 나는 어떻게 해서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 19 위중증 환자가 되었나?

결과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전조가 있기 마련이다. 열흘 전에 동창 모임이 있었다. 다음날은 출판기념식도 있었다. 그날 새벽에 목욕탕에 가는데 콧물이 쏟아졌으나 곧 멈췄다. 기념식장은 양재천 야외 공연장인데 찬바람이 몹시 불어서 추위에 떨었다. 이어서 단체로 식당에 가서 몸을 녹이며 점심을 하였다. 식사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 이때가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경우다. 그날 저녁부터 입 천장에 건조함을 느껴면서 감기 기운을 느꼈다. 체온을 재어보니 36.5도로 정상이었지만 혹시나 해서 주말 산행은 모두 취소했다. 월요일에도 체온은 정상이지만 감기 기운이 개운치 않았다. 의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병원에 들렀다. 감기로 판정하고 일주일 약을 받아왔다. 코로나 19 확진 통보를 받기 일주일 전이다. 이때부터 무엇인가 몸 안에서 꿈틀거렸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문제는 설익은 상식만 가지고 체온이 정상이니 코로나 19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래도 모든 약속은 취소했다. 닷새 전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 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이때도 마스크를 벗었으니 코로나 19 감염의 두 번째 가능성이 생겼다. 다음날은 주민센터에서 역사 세미나가 있었고 이어서 단체 회식이 있었다. 역시 세 번째로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만 했다. 코로나 19 전파의 가장 큰 장소가 마스크를 벗는 곳이다. 즉 식당에서 식사할 때가 그 어느 장소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코로나 19 감염은 세 번의 식당 식사 중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이 잘못되려면 악수가 악수를 낳는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지는 공공 음식점에서의 마스크를 벗고 식사한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본다. 나 자신만 몰랐을 뿐 “#머피의 법칙”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식당 다녀온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몸에 열이 있음이 느껴졌다. 체온을 재어보니 역시 38도 고열이다. 처방전 받은 감기약이 남아있었지만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로 하였다. 간호사가 진료받기 전에 먼저 체온을 재어보더니 체온이 높다고 한다. 37.8도 이상은 진료받지 않으니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에 먼저 다녀오라고 한다. 즉시 인근의 삼성역 선별 진료 시에 가서 PSR 진단을 받았다. 코와 목에서 검체를 채집하더니 만 골장 집으로 가서 결과를 기다리고 한다.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다.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에 문자가 떴다. “코로나 19 확진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이며 향후 보건소의 지시에 따를 것을 알리는 메시지다. 병원 배정자로서 병원이 수배되는 대로 입원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토요일 종일을 보건소 연락을 기다렸으나 병원 배정은 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위중증 확진자의 병상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환자가 많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의 몸속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 있다. 공포가 물감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일요일도 보건소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기침이 제법 나오기 시작한다. 스스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보건소에서 자택 치료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다. 황야에 내동댕이 처진 신세가 되었다. 또 다음 날인 월요일에도 소식이 없다. 참다못해 보건소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숨이 차서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도 하였다. 치료 약도 전혀 쓰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확진자의 상황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정오가 지나자 보건소에서 병원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을 준다. 오후 5 시 반에 준비물 챙겨서 구급차에 탑승하라는 연락이 왔다. 천사의 메시지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3 일간 몸속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서 얼마나 증식되었는지가 문제였다. 숨은 점점 더 가빠지기만 한다. 모든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3 일간 병을 키웠으니 병리학에 문외한인 나 자신은 공포에 사로잡힐 뿐이다.

정확하게 오후 5 시 반에 구급차가 와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다린다. 혼자 집을 지키다가 이제 격리병원으로 간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동부고속화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달리더니 만 하계역에서 빠져나온다. 대학교병원 지하실에 도착하니 대기 중인 방역요원들이 위생복과 장갑을 주고 착용하라고 한다. 짐을 별도 카트로 가져간다. 6 층 격리병동 검체채취실로 직행하였다.

호흡기내과 주치의는 10 여 명의 하얀 우주복을 입은 의료원들과 함께 민첩하게 움직인다. PCR 검사를 하는데 검체원이 너무 깊숙이 찔려서 코에서 피가 난다. 엄청나게 피가 쏟아진다. 목구멍을 타고 피가 흐르는 것을 느낀다. 바닥에 피가 많이 떨어져서 닦으니 바닥 전체가 피바다가 되었다. 무엇인가 부산한 분위기에서 정신이 없다. 산소 농도 측정하니 89% 전후가 되었다. 주치의가 무조건 산소호흡기부터 부착하고 입원 검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다. 산소통이 들어온다. 이때도 나의 기침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온다. X-RAY 를 찍으려고 하나 숨을 멈출 수가 없어 촬영에 어려움이 컸다. 혈액검사, 담검사, 뇨검사, 심전도 검사 등등 제반 입원 전 검사가 끝났다.

주치의 결정이 나왔다. 위중증 긴급환자로 판명되었다. 70 세 이상으로 고위험군에 속해서가 아니라 급성 폐렴에 의한 위중증 환자가 된 것이다. 병원에 오기까지 3 일간 자택에서 병을 키워서 온 것이다. 폐사자의 폐렴 정도로 보아서 더 위증해지면 고압 산소가 필요한데 이 대학병원에는 없다고 한다. 타 병원 이송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잠시 상황을 재검토한 주치의 결정이 다시 나왔다. 1 인실 집중 관리실에서 오늘 밤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자고 한다.

집중 관리실에서 산소 농도, 탄산가스 농도 등 자동 측정 계기 줄과 산소공급줄 등이 나에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 영화에서 본 로버트가 된 기분이다. 숨이 더욱 차오르며 호흡이 불규칙 해진다. 이대로 숨이 멈추게 되면 그대로 화장장으로 가게 된다. 물론 가족과 연락도 되지 않는다. 화장이 끝나면 그제야 유골이 가족과 만나게 된다. 나에게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상황이었다. 집중 관리실은 밤새 의료진이 쉬지 않고 점검을 계속하였다. CCTV 로 각종 계기판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에 주치의는 나에게 선택권을 돌렸다. 증세가 일단 완화는 되었지만 지방의 고압 산소 병원을 수배 중이라 한다. 수배가 되면 가겠는지 아니면 이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치료를 받을지를 선택하라고 한다. 선택했다. 그대로 있겠다고 주치의에게 이야기를 하자 잘해보자고 한다. 이어서 5 인실 격리병실로 이동하여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속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퇴원 이를 전까지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았다.

입원하고 있는 동안 코로나 19 PCR 검사는 3 일에 한 번, 폐렴의 정도를 보는 X-ray 는 이틀에 한 번, 산소 공급에 따른 간 수치를 보는 혈액검사는 이틀에 한 번꼴로 검사를 했다. 검사 수치를 항바이러스제인 램데시비르(Remdesivir) 성분인 “베클루리주(Veklury)”를 매일 1 회 정맥 수액을 총 5 회 맞았다. 효과가 아주 좋아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부분이 증식이 억제되어 소멸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산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혈전 방지용 스테로이드 정맥주사도 매일 맞았다. 산소 농도가 계속 잡히지 않아서 나중에는 혈당을 점검하였다. 높은 편이라서 인슐린 주사액(초기)과 알약(다이아벡스 정과 자누비아정)을 혈당 체크 후에 매일 복용하였다. 한편, 염증 낮추는 근육주사도 매일 맞았다. 약 복용은

알약 기침억제 및 진해진통제(구주 인사코데인정)와 진해거담제 시럽(코프 시럽)은 매 식사 후에 복용하며, 위산분비억제제(스토가 정)는 매일 아침 식후에만 복용하였다.

기침이 계속되어 더 독한 약이나 다른 약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면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 약을 써야 한다. 이때 사용량의 한도에 조심도 해야만 한다. 치료제의 역작용이나 부작용의 상관관계의 점검을 위한 또 다른 검사 등 의료 행위의 어려움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입원 5 일차가 되면서 특효약 베클루리주 코로나 19 치료제 1 팩(5 일간정맥 수액)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충분히 약화되어 램데시비르 성분의 베클루리주를 더 이상 투약할 필요가 없어졌다. 일단 한고비를 잘 넘겼다.

입원 6 일차부터 퇴원하는 14 일차까지 9 일간은 산소치료법이 위주가 되었다. 혈중 산소 농도만 조절되면 되는데 한 번 손상된 폐 때문인지 정상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정상 95%가 나오지 않아 산소 3 리터, 2 리터, 1 리터로 줄여 오다가 산소를 떼면 수치가 또 나빠진다. 그러면 다시 산소 공급을 반복하며 산소 치료에 주력하였다. 혹시 당뇨에 영향이 있을지 못해 혈당도 점검하여 산소 농도를 체크해 나갔다.

입원 12 일차에 이르자 다음날부터 산소호흡기 줄을 떼고 검사하여 퇴원 여부 결정기로 하여 13 일차 산소호흡기 줄을 떼고 하루를 보냈으며 이때 산소 농도가 95% 유지가 되어 최종 퇴원이 결정되어 14 일차에 퇴원을 하였다. 치료하면서 복용하였던 약을 7~14 일 치 추가로 받았다. 드디어 오후 1 시 30 분에 병원 격리 해제가 되었고 따라서 퇴원하여 귀가하였다.

귀가와 함께 격리가 정식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일상에 구매를 받지는 않았으나 기침이 계속되고 있었다. 삼 일간은 집에만 머물렀다. 귀가 4 일차는 부친 기일이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을 방문하였다. 짧은 걷는 거리에 숨이 몹시 찼다. 폐에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5 일차에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집 주변으로 외출해 보았다. 약간의 경사로인데 기침을 몹시 하였다. 되돌아오는 길은 기침을 하지 않았다. 폐가 어느 정도 외부에 적응을 한 것 같다. 퇴원 6 일차 호흡이 상당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혈중 산소 농도는 여전히 불안한 94%를 넘나든다.

퇴원 후 1 주일이 넘으면 최종 확인 체크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11 일차에 강남보건소에 들려 “격리해제증” 발급받을 예정이며 12 일차에는 기존에 치료받았던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PCR 검사를 받고 다음날 X-Ray 검사를 받아볼 예정이다.

격리병실에서 2 주일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수시로 넘나들었다. 이러한 삶의 작은 마디가 왜 나에게 생겼는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섭생에 신경을 써준다.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으로 간식까지 잘 챙겨서 준다. 집안일마저 모두 도맡아 하려고 한다.

어느 날 문자로 코로나 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았다. 남들 이야기로만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그날부터 나에게서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강제로 격리병동에 있었던 2 주 전후의 한 달은 의미가 컸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격리 생활을 했다. 무엇보다 호흡의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았다. 죽음을 문턱을 오가는 고비를 몇 번 넘기었다. 앞 병상의 기저질환 환자는 한밤중에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완치가 되어 퇴원을 하였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 아직은 자택에서 후유증으로 몸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맺어진 한 달이라는 삶의 마디는 나에게 잃어버린 한 달이 아니었다. 이어지는 마디를 보다 더 건실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끔찍했던 마디도 그렇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다. 그러한 마디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경고를 적시에 잘 받았다는 긍정적 생각을 각인해야만 한다. 되풀이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파멸이다.

#심운.2021.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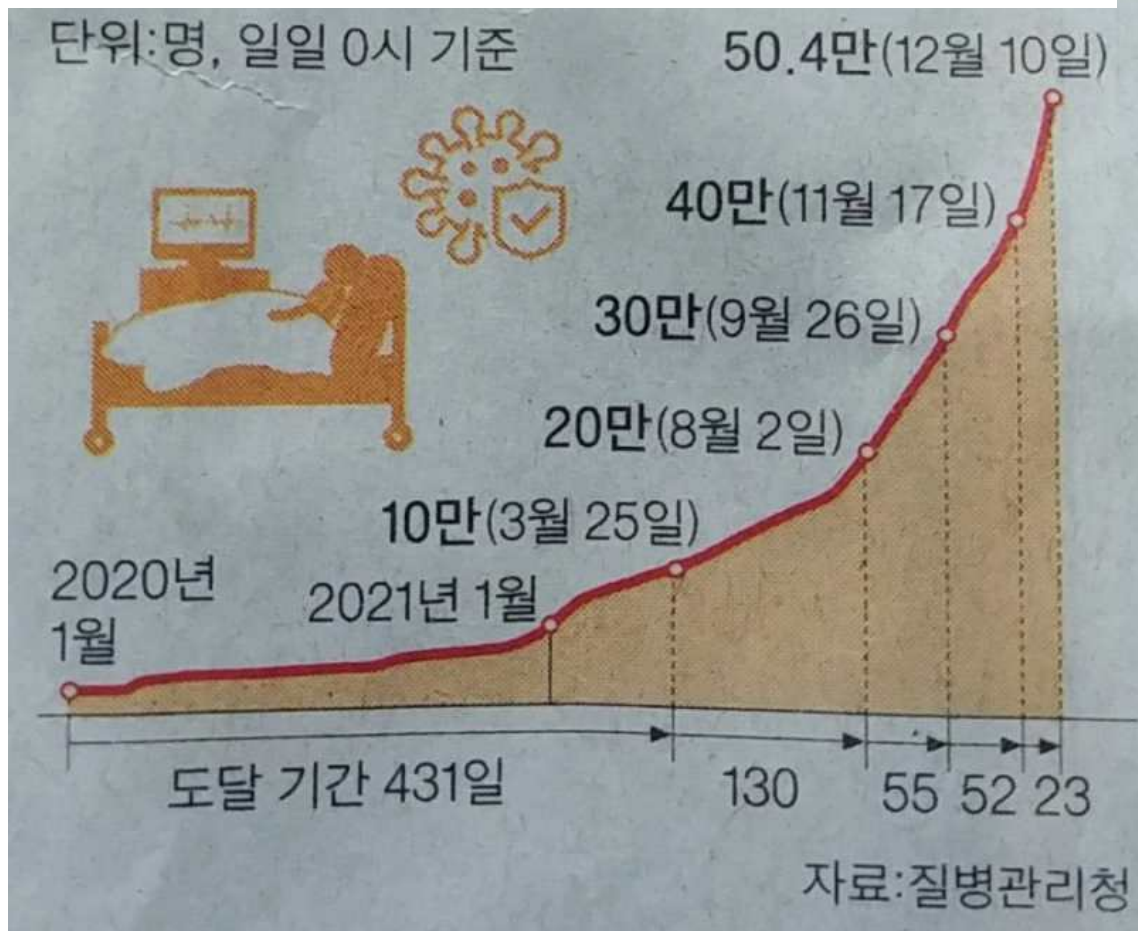
비고

\* “코로나 19”는 국제 공식 명칭이 “COVID-19”다. 2019 년 12 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을 말한다. 고온, 두통, 폐렴의 주요 현상으로 전파력이 아주 높은 신종 RNA 바이러스다. 일반 폐렴은 증상이 나타나 후에 전파를 시작하지만 코로나 19 는 먼저 폐렴을 유발한 후에 증세가 나타난다.

\* “확진자”는 트리아제 분류하면 3 개 증상으로 미증상 및 증상 80%, 모더레이터 15% 및 위중증 5%로 구성된다.

\* “코로나 치료제”로 대표적인 정맥주사 치료제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와 램데스비르 성분을 가진 위가 있다. 경구용으로는 화자의 팩스로비드, 머크앤드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가 있다.

\* “병상 일기”는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되어 완치된 2021년 11월 11일(목)~12월 11일(토)까지 이야기다.



\* 우리나라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 2021.12.12. 일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월10일부로 국민의 1%인 50만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매 10만명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는 현상이다.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 등장, 돌파 감염, 접종 백신의 약효 감소가 주요 이유다.

확진자이자 중증 환자로서 완치된 사람으로 앞으로 어떠한 사후 관리를 해야하나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려본다.

★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확진자가 되었으니, 3차접종(부스타샷)을 맞아야 하나?

★ 3차 접종을 안 해도 방역증명서(백신 패스) 발급 받을 수 있나?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공면역"은 mRNA 조작에 의한 맞춤형 백신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종에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 확진자가 백신 접종률이 80% 넘어서도 급증하는 이유란다. 또한 세계인에게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면 해결될 수도 있다. 문제는 선진 제약회사와 연구소가 핵심 특허를 풀지 않기 때문이라다. 지구촌의 약육강식의 동물적 모습이다.

반면에, 확진자가 치료에 의한 "#자연면역"은 생성된 "#중화항체"와 "#면역글로블린"이 있어 변종에 잘 대응할 수가 있다고 한다. 치유자는 재 감염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자연면역이 생긴 사람에 대한 연구보고서 찾기가 쉽지 않다. 전회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한 번 더 맞으면 좋다고 하는 보고서를 접했다. 과연 완치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필요한 지 아니면 완치 후 어느 기간 내에 접종을 해야하는 지 그 해답을 알고 싶다.

일방적인 정부 방역 정책에 의구심이 간다. 백신량 공급 확보도 쉽지는 않다. 그래도 천만명에 육박하는 60~74세까지 국민에게 일괄로 "#아스트라 제네카\*"만 접종하게 했다. 2회 접종이다. 그 간격도 "#데이터" 없는 설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거기다가 3차접종(부스타샷)은 "#모더나" 한 가지로만 확정했다. 국민에게 알 권리가 침해당한 기분이다.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신뢰할수 있어야 하는데 통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각종 발표는 위험하다.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데이터의 축적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된다.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력 비중을 생각하면 자금의 정부 방역 방향과 대책에 의구심이 커질 뿐이다.

2021.12.14. 화

비고

\* "#아스트라 제네카"는 더 이상 국내에 공급이 안된다.

---

조용한 아침을 맞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대로 정말로 다 지나간다. 오늘 오후 1시 30 분을 기점으로 "#코로나 19" 확진자로서 배정되었던 대학병원 격리병동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한다. 동시에 질병센터로부터 "#격리 해제"가 되어 자택으로 귀가한다. 갑작스럽게 격리병동에 입원한 지 짧지 않은 2 주 만의 일이다.

코로나 19 위중증 상태의 확진자로서 입원 당시는 상태가 심각했다. 폐렴에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숨을 쉬기가 어려웠었다. 집중 관리를 받으며 최첨단 의술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결코 나는 이 난관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확진자 통보를 받았을 때는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다. '왜 내가?'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밝은 동살이 격리병동 유리창을 통과해서 내가 머물렀던 병상에 머문다. 떠난 자리에서 또 다른 확진자가 치료를 받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삶에는 블록화한 마디가 모여있다. 학창, 군대, 직장, 사업, 은퇴 생활 등 각 블록은 독립적이며 상호 종속적 관계에 있다. 이를 잘 연결시키는 끈이 "#건강"이다. 종심의 나이를 넘어오기까지 이번이 두 번째 병원 입원이었다면 나름 건강관리를 잘 해온 것 같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심운 2021.12.5.일

비고 : 확진자로서 완치되기까지 격려해 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351 개)

<https://m.blog.naver.com/kwansyk/222574546586>

코로나 19 확진자 이야기 <제 1 화>

어제 새벽에 "코로나 19(COVID-19)" "#확진자\*"라는 통보 문자가 핸드폰에 떴다. ...

[m.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

\* 제 1 화~제 10 화(S1~8) : 총 댓글 351 개



\* 병상 위의 통신시설, 산소 공급장치, 진공장치 등

\* 가운데 병상이 내 자리였다. 주치의가 양해를 구해와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나 곧 텅 빈자리가 된다

\* 한밤중에 오늘도 위중증 환자를 타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당한다. 환자는 이유도 모르고 여러 위생복 착용의 일사불란한 조치에 말이 없다. 아마 폐렴이 악화되어 고압 산소가 급히 필요한 모양이다. 그리고 빈 침상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나의 증세도 다분 그럴 가능성이 높았었다.

\* 퇴원. 2021.12.5. 일

<2021.11.21>

1. 놀라셨겠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회복 바랍니다. 이제 천하무적 되셨네요. ^^ 미리 축하 드립니다.





2. 심운. 부디 잘 회복하셔서 완벽 항체 보유자로 만납시다. 어쩐지 정부의 확진자 증량정책의 희생자 냄새도 나지만 Who Knows ?

3. 격리시설 들어가면 없던 병을 얻을 수 있다는 설이 있으니 그걸 제일 신경쓰셔야 하는데 제가 아는 경험자들 얘기로는 아무런 조치 않고 그냥 일정기간 가두어둔다더라고. 그다음론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크게 줄어 이걸 회복하는데 3달 매일 15,000 보 걸어야 하더라고요. 방안에서 매일 15000 보 걸으시라더군요.

4. 심운 드릴 말씀은 " 이 또한 지나가리라 " 건강관리 잘 하시어 크게 웃으면서 만납시다.

5. 심운, 몸조리 잘 하고 고생없이 격리 해제하길 바랍니다

6. 관식이. 모쪼록 무사히 벗어나길 간절히 비네. 한국은 백신중에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통에 접종전략에 실패했어요. 초기에 도입계약을 하지않다가 뒤늦게 허둥대더니 효능이 적은 AZ 을 들여왔고 그나마 수입량이 적으니 접종을 높이려고 함량미달로 주사했으니 요즘 침투 확진자가 수천명씩 나오는게아닐까! 東京은 최근 한달간 하루평균 50 명이하. 치료약도 곧 미국에서 수입될 전망. 위정자들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국민의 생명을 안정되게 하지요.

7. 새빨간 단풍을 눈에 담고 격리되는 군요. 잘 인내하고 이겨 내십시오.

8. 남의 이야기 인가보다 했네. 우짜다가? 백신 맞아도 별 효과 없네 암튼 조속 쾌유 기원

9. 어떤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나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 왔으니 잘 견디리라 믿고 가능한지 모르겠군요 화이팅 하시길...

10. 자가치료 입니까? 2 차접종 후 돌파감염은 증세가 가볍다고 하던데, 힘내세유.

11. 시방 병원에 입원하신 거유?

12. 관식아— 힘내라 — 네 말마따나 그어려운 해외생활도 이겨왔는데 그까짓거 코로나지 원지 그거쯤이야 이기겠지— 맘 편히먹고 병원생활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 으로 만나자—!!!

13.

14. 관식이가 아파? 어찌지?

17. 이제라도, V — c.d 그리고 zinc 를막아라.꼭! 관식아!강하게!

18. 모든면에서 건강한, 관식친구~~~ 동안 쌓아온 내공으로 짖 코로나 19 쉽게 보내버리길~~

19. 돌파감염이 유행하니 조심할 수 밖에~ 내공이 강한 친구이니 충분히 극복하리라

20. 빠른 쾌유를 빕니다.

21. 지난 여름에 본인도 확진자와 당구를 쳐서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를 시켜 10 일을 방콕한 적이 있었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날짜	시간	혈압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			기타증상
		수축기(위)	이완기(아래)			8A	10A	12P	
12/23	8A								
	2P	115	53	69	76	96	96	96	
	8P	108	66	70	71	97			
24	8A	120	80	68	68	95	97	97	
	2P	118	75	70	67	95	96	97	
	8P	105	68	72	70	97			
25	8A	114	83	70	83	96	95	97	
	2P	120	78	70	78	96	96	98	
	8P	120	79	71	63	97			
26	8A	112	84	69	64	95	99	96	
	2P	117	76	71	70	96	96	96	
	8P	112	84	71	62	96			
27	8A	121	80	71	70	94	96	95	
	2P	112	79	71	64	94	96	95	
	8P	120	80	69	66	95			
11/29	8A	120	80	71	80	94	97	96	21-95
	2P	128	86	69	63	94	96	96	
	8P	118	68	69	63	96			
30	8A	115	75	68	62	96	96	96	12
	2P	115	76	68	65	96	96	95	
	8P	110	68	69	61	95			
12/1	8A	113	86	67	64	95	96	96	12-5X
	2P	118	84	71	63	95	96	96	
	8P	113	74	69	63	96			
2	8A	118	84	62	69	95	97	97	12
	2P	116	83	62	64	95	96	96	
	8P	118	82	67	66	97			
3	8A	110	71	71	71	94	95	96	out-12
	2P	104	66	68	60	96	96	96	
	8P	104	66	69	64	95			
		108	72	67	70	94			

하루 3번(아침 8시, 오후 2시, 오후 8시 전까지) 측정해주세요.

\* 산소포화도는 짝수시간마다 측정해주세요.

\* 열(체온 37.5 이상)있는 사람은 체온 2시간마다 측정합니다.

날짜	시간	혈압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			기타증상
		수축기(위)	이완기(아래)			8A	10A	12P	
12/4	8A	100	70	70	71	94	95	96	out
	2P	101	88	70	71	95	95	95	
	8P	112	80	73	75	95			
5	8A	115	79	72	82	95	96	96	
	2P								
	8P								
6	8A								







22. 무증상 확진자가—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고—

23. 꼭!비타민,아연먹어라

24. 관식이. 모쪼록 무사히 벗어나길 간절히 비네. 한국은 백신중에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통에 접종전략에 실패했어요. 초기에 도입계약을 하지않다가 뒤늦게 허둥대더니 효능이 적은 AZ을 들여왔고 그나마 수입량이 적으니 접종을 높이려고 함량미달로 주사했으니 요즘 침투 확진자가 수천명씩 나오는게아닐까! 東京은 최근 한달간 하루평균 50 명이하. 치료약도 곧 미국에서 수입될 전망. 7 위정자들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국민의 생명을 안정되게 하지요.

25. 그런데도 지지율이 해방이후 최고, 임기 5 개월 남기고도 40%수준!! 도통 이해가 안가유. K 방역 훌륭하다고 세계 만방에 홍보비 지출이 일천억원 이상 썼다는데 백신도입은 소홀히 하구.. 기가막힙니다

26.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7. 반듯이 이겨내실겁니다. 화이팅 !

28. 관식이 확진자래~어쩌나

29.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였구나. 아픈 것보다 불편함이 많겠지. 잘 치료해라.

30. 심운! 건강하시니, 금방 이겨낼거요. 휴식 잘 취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31. 어쩌나 ~ 재수없네~

32. 자유가 구속되겠다~ 빨리 치유하고...

33. 박 선생님 고생 하시네요. 식사 잘 하시고 잠 충분히 자는 게 제일입니다.

34. 박선생님빠른쾌유를빕니다

35. 박작가님, 빠른 회복을

36. 네, 이 또한 지나갈겁니다. 마음편히 가지시고 대처하십시오. 우리도 언제 어느때 알수 없습니다. 건강하시니 관찮으실꺼예요. 물 많이드시고 먹는것도 잘 드세요.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37. 완쾌되길 기도합니다!!! 7 핫팅!!!(브이)

38. 지금은 자가 격리인가요? 부인은?

39. 지금은 감기 정도예요. 비타민 c ,과일 많이 드세요. 밥도 많이 드시고. . .

40. 박선생님은 젊고 강경하시니까 곧 회복되실 겁니다. 잘 드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速得快差 하세요

41.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42. 관식 친구 걱정은 조금되지만 지식이많은 관식이니 슬기롭게 극복 하시길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 감염이 될수있기에 건강 체크 잘하시고 사람 접촉을

43. 코로나 예방접종에 뺑구가 났다구 하는데 뭐가 원지 — 한번만 맞아도 월일을 두번세번씩 맞으라고 하는 건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지 해명도 없이 환자만 3 천명씩 늘어 나는 이유는 밝히지도 않고 돌파감염 만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국민만 들볶는 것이 현정부인 데 뭐가 40%라는건지 난 아예 방송 신문을 안본지 하도 오래돼서 카톡에서나 세상이 아기를듣습니다— 투표 잘 해야지요 감시자도 없는 투표??

44. 너무 황당한 소식입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45. 심운선생, 열은 나는가? 쿠팡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약 1만원정도) 빨리 주문해서 수시로 측정하고 수치가 떨어지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해. 우리 나이가 있으니 잘 몸 관리해서 빨리 회복되기를....

46~ 491 까지의 댓글은 원본 참조....

---